

三毒에 대한 불교의 종교교육

- 『화엄경』 「십지품」에 나타난 敎說을 중심으로 -

강기선

동국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三毒에 대한 불교의 종교교육 - 『화엄경』 「십지품」에 나타난 敎說을 중심으로 -’ 살펴본 글이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2장에서는 초기 경전에 설해진 삼독의 일례를 통해, 삼독에 대한 붓다(Buddha)의 原音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경전에서는 三毒의 원인은 6가지 감각기관의 첫 번째인 눈으로부터 시작하여, 6가지 경계대상인 6境인 色境을 거쳐, 6가지 인식기관인 6識인 眼識과 五蘊의 작용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즉, 삼독은 감각적 작용인 탐욕의 불과 성냄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측면인 無智한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고, 태어남·늡음·병듸·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감각은 일차적으로 외부대상에 의해 야기되므로, 대상에 의해 촉발된 만큼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아 촉감하고, 생각하고 판단·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삼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삼독의 작용은 18界[6근+6경+6식]에 의해 生起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탐욕·분노·어리석음의 소멸에 있다는 것이 초기불교의 핵심전언이다.

제3장은 『화엄경』 「십지품」에 나타난 삼독과 그 해결방안을 十地의 각 항목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십지품」에는 각 단계의 地마다 다양한 敎義의 방편들이 세밀하게 설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편들은 악의 근원인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십지경』의 주석서인 『십지경론』에는 十地를 설하게 된 까닭은 10가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규명하고 있다. 이 10가지 장애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삼독[번뇌 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환희지에

서 언급한 삼독의 폐해 역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과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十地수행을 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삼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십지품」의 각 十地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르침의 결론은 “모든 惡을 짓지 말고, 온갖 善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佛(Buddha)의 가르침이다.”라는 七佛通戒偈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초기경전, 화엄경, 십지품, 삼독, 七佛通戒偈.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학교·사회·공공기관 등의 모든 사회제도는 개체로서 자아를 평가하고 무제한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인간의 삶을 무한경쟁과 무한성취, 그리고 무한축적을 지향하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팽팽한 무한 경쟁의 시대는 자연스럽게 공유보다는 서로간의 견제와 대립, 배타적 소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로, 얼마 전에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고·사건의 근저에는 항상 나(我)만을 위한 이기심인 탐욕(貪欲)과 성냄(瞋恚), 그리고 그릇된 사건(愚癡)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불교에서는 삼독(三毒)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삼독(三毒)이 모두 삼계(三界)의 일체 번뇌를 통섭(通攝)하고, 일체 번뇌가 중생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와 독룡(毒龍)의 독과 같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사회의 모든 사건사고는 이 3가지의 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삼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십지품」의 교설을 주 텍스트로 삼은 것은 이 품에서 삼독의 현상들이 어떤 형태로 설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어떤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의도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 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초기불전에서 설하고 있는 삼독(三毒)의 함의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삼독의 원인과 그 양상을 현 시점에서 규명해본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문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삼독의 폐해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화엄경』 「십지품」의 교설(敎說)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기에 담긴 종교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초기 경전에 설해진 三毒교육

이 장에서 살펴볼 삼독에 대한 의미는 모든 불교경전과 본 연구의 주 텍스트인 『화엄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삼독과 동일한 개념이다. 여기서 초기경전에 설해진 삼독의 의미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경전의 성립배경에서 볼 때, 초기경전이 먼저 결집·찬술된 순서상 때문이다.

1. 三毒의 의미

삼독에 담긴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탐욕(貪慾), 진에(瞋恚), 우치(愚癡)의 세 가지의 번뇌를 말하며, 삼화(三火) 또는 삼구(三垢), 삼도(三道)라고도 한다. 또 중생을 해치는 악의 근본이므로 삼불선근(三不善根)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서 보면, 탐(貪)이란 사물을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貪慾]을 말한다. 그리고 진(瞋)이란 노여움[분노]이란 뜻이며,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치(癡)란 어리석다는 뜻이며, 자기 마음대로 매사를 판단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는 마음[慢心]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3가지 독(三毒)이라고 한다. 이 삼독은 번뇌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마치 세 마리의 독사와 같다고 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종류(煩惱)는 모든 번뇌 중에서 가장 큰 것이며, 온갖 번뇌의 근본이고, 모든 번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心身(정신과 육체)을 지금세상(今世)과 다음세상(後世)에 걸쳐서 해치고 피해[毒]를 주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한다.¹⁾ 여기에 대해 천태지의대사는 그의 저서 『법계차제초문』제1권 「삼독초문」제7에서 삼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慧遠, 『大乘義章』第5卷(T44, 565a), “言三根者 謂貪瞋癡 染境名貪 忿怒曰瞋 闇惑名癡 此三乃是思前煩惱發生思業 故名爲根 言三道者 所謂貪瞋及與邪見 貪瞋同前 言邪見者 謬執乖理 目之爲邪 邪心推求 說之爲見 以何義故 前三根中 第三名癡 此三道中 說名邪見 成實釋言 癡中增上說名邪見 暢思煩惱 必是增上 故說邪見 此三乃是思後煩惱 通暢前思 故名爲道 言三毒者 名同三根 以何義故 不同三道 乃同三根 三根之中 癡名是寬 故此同之 三道之中邪見義狹 故此不同 然此三毒 通攝三界一切煩惱 一切煩惱 能害眾生 其猶毒蛇 亦如毒龍 是故就喻說名爲毒 名義如是.”

삼독이란 첫째는 탐내는 독이고, 둘째는 성내는 독이며, 셋째는 어리석은 독이다. 첫째 탐독은 이끌어 취하는 마음을 일러 탐이라 한다. 만약 미혹한 마음으로 일체를 대하면 순정(順情)의 경계니, 이끌어 취함[引取]을 싫어함이 없으니, 곧 이것이 탐독이다. 삼계오행과 15탐사를 아우르는 이것이 탐독이다. 다만 위 2계(二界)번뇌가 이미 엮은 연고로, 별도로 사랑을 받는다(受愛)고 이른다. 둘째 진독(瞋毒)은 분한 마음을 일러 진(瞋)이라고 한다. 만약 미혹한 마음으로서 일체를 대하니 위정(違情)의 경계다. 아침으로 분노를 일으키니 곧 이것이 진독(瞋毒)이다. 육계오행아래에 5가지 성냄이 있으니, 이것이 성내는 독(瞋毒)이다. 수많은 사람의 뜻 중에는 2계(二界)는 성냄이 없다(無瞋). 셋째 어리석음의 독(癡毒)은 미혹한 마음이 취(取)가 됨이니, 만약 일체 사물의 도리가 법과 무명을 요달하지 못하고, 미혹하고 망령되어 취하여 모든 샛된 행(邪行)을 일으키니 곧 이것이 치독(癡毒)이며, 또한 무명이라 이른다. 무명에 2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상응무명이니, 곧 이 삼계오행아래로 더불어 88사가 상응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는 상응하지 않는 무명이니, 곧 삼계오행아래에 15가지 치사(癡使)가 있다.²⁾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독이란 탐내는 독, 성내는 독, 어리석음의 독이라는 것이다. 삼독은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무명이기 때문에 12연기의 첫째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 교육은 삶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삼독에 대한 교육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만 삼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 삼독의 생기원인과 양상

그렇다면, 삼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삼독을 삼화에 비유하여 붓다(Buddha)는 다음과 같이 설법하고 있다.

2) 智者大師撰, 『法界次第初門』第1卷(T46, 667c), “一貪毒 二瞋毒 三癡毒 一貪毒 引取之心名之為貪 若以迷心對一切順情之境 引取無厭 即是貪毒 歷三界五行 十五貪使並是貪毒 但上二界煩惱既薄故 別受愛名 二瞋毒 違忿之心 名之為瞋 若以迷心對一切違情之境 便起忿怒 即是瞋毒 歷欲界五行下 即有五瞋使 並是瞋毒 數人義上二界無瞋也 三癡毒 迷惑之心名之為癡 若迷一切事理之法 無明不了 迷惑妄取 起諸邪行 即是癡毒 亦名無明 無明有二種 一者相應無明 即是與三界五行下八十八使 相應共起 二者不相應無明 即是三界五行下十五癡使也.”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눈이 불타고 있고, 빛깔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 즐거운 느낌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불타고 있다. 귀 · 코 · 혀 · 몸도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이 뜻도 불타고 있고, 법과 의식과 의촉과 의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 즉 괴로운 느낌 · 즐거운 느낌 ·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또한 불타고 있다.³⁾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독의 원인은 6가지 감각기관[6根 즉, 眼根 · 耳根 · 鼻根 · 舌根 · 身根 · 意根]과 6가지 경계대상[6境: 色境 · 聲境 · 香境 · 味境 · 觸境 · 法境] 그리고 6가지인식기관[6識: 眼識 · 耳識 · 鼻識 · 舌識 · 身識 · 意識]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남에 따라 삼독이 生起한다는 것이다. 6근과 6경 그리고 6식을 줄여서 근(根) · 경(境) · 식(識) 삼사라고 한다. 이 삼사(三事)는 인간의 인식기관인 18가지 범주[18계]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삼사(三事)가 동시에 화합하여 작용한다. 그리고 경전에서 ‘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6근 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근(眼根)을 지칭하며, 빛깔은 6경이며, 6경의 기본은 색경(色境)이며, 안식은 6식의 첫 번째인 항목에 속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눈으로 아름다운 빛깔의 꽃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안근]은 곧 6근의 작용이며, 눈으로 보이는 대상인 아름다운 꽃[색경]은 6경의 작용이고, 마음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안식]은 6식의 인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눈의 감각기관[안근] · 귀의 감각기관[이근] · 코의 감각기관[비근] · 혀의 감각기관[설근] · 몸의 감각기관[신근] · 뜻의 감각기관[의근]과 6가지 경계대상인 色境[색깔과 형태] · 聲境[소리] · 香境[냄새] · 味境[맛] · 觸境[감촉] · 法境[분별 판단]과 그리고 6가지 인식인 眼識[눈의 인식] · 耳識[귀의 인식] · 鼻識[코의 인식] · 舌識[혀의 인식] · 身識[몸의 인식] · 意識[뜻의 인식]의 삼사(三事)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독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六根]과 감각되어지는 대상[六境], 그리고 인식기관[六識], 五蘊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3가지 불(三火)의 양상과 비유하여 이렇게 설하고 있다.

3)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第8卷, 197경(T2, 550b), “一切燒然 云何一切燒然 謂眼燒然 若色 眼識 眼觸 眼觸因緣生受 若苦 若樂 不苦不樂 彼亦燒然 如是 鼻 舌 身 意燒然 若法 意識 意觸 意觸因緣生受 若苦 若樂 不苦不樂 彼亦燒然.”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火)로 불타고 있고, 분노의 불(火)로 불타고 있으며, 우치(愚癡)의 불(火)로 불타고 있고, 생(生)·노(老)·병(病)·사(死)·걱정·슬픔·번민·고통의 불(火)로 불타고 있다.⁴⁾

여기서 언급된 탐욕의 불·분노[성냄]의 불·어리석음의 불(火)과 기본적인 4가지 고통인 生·老·病·死와 걱정·슬픔·번민·고통[苦]의 불로 불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 탐욕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다. 그 대상은 눈으로 볼 때 뿐만 아니라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마음]으로 생각 속의 현상들을 생각할 때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이때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탐욕의 마음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순간 그릇된 邪見을 일으키게 되는 데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번뇌는 우리의 삶속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위의 경문은 붓다(Buddha)께서 마가다국의 우루벨라 지방에서 불을 섬기는 카샤파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 1,000명을 교화하시면서 설하셨던 내용이다. “세상은 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불타고 있다”는 비유를 들어가며, 불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꺼야 [소멸]할 대상임을 교육하셨다. 눈이 대상을 보면서 불타고 있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서 불타고 있고, 코가 냄새를 맡으면서 불타고 있고, 혀가 맛을 보면서 불타고 있고, 몸이 감촉을 느끼면서 불타고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떠올리며 불타고 있으니, 바로 이 불을 소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이다.⁵⁾ 또, 『불본행집경』 제42권에도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설해져 있다.

이 일체 법은 모두가 타오르는 것이다. 타오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눈도 타오르고 색(色)도 타오르며, 눈의 식별[眼識]도 타오르고, 눈의 접촉[眼觸]도 타오르고 눈의 접촉으로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또한 타오른다. 무엇으로 타오르는가? 탐욕의 불길로 인하여 번뇌가 타오르고, 분노의 불길로 인하여 번뇌가 타오르고, 어리석음[그릇된 사건]의 불길로 인하여 번뇌가 타오르는 것이다.⁶⁾

4)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第8卷, 197경(T2, 550b), “以何燒然 貪火燒然 恚火燒然 癡火燒然 生老病死憂悲惱苦火燒然.”

5) 김재성, 『초기불교산책1』(서울: 한언, 2010), 259쪽.

6) 闍那崛多譯, 『佛本行集經』第42卷(T3, 850c), “此一切法 皆悉熾燃 言熾燃者 眼亦熾燃 色亦熾燃 眼識熾燃

불교에서 말하는 3가지 허물(三垢)이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3가지 욕심으로, 곧 탐욕과 진욕(瞋慾)과 치욕(癡慾)을 말한다. 이 경문의 내용은 불교의 핵심 교의인 6근과 12처와 18계의 내용을 설한 것이다. 앞에서 상술했듯이, 우리는 눈[眼根]으로 사물을 보고[色境] 눈으로 인식하여[眼識] 판단한다. 이럴 때 우리는 눈으로 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이것이 곧 6근과 6경 그리고 6식이 동시에 작용하는 지각활동이다. 중생이 삼독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붓다(Buddha)는 “능히 탐욕과 진에와 어리석음의 사악한 독(蛇毒)을 지혜로써 제거하고, 생사의 집을 빠져 나오신 분”⁷⁾이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自性を 깨달은 붓다(Buddha)가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다. 즉 우리의 감각은 일차적으로 외부대상에 의해 야기되므로 대상에 의해 촉발된 만큼만 느끼는 것이 탐욕·분노·어리석음의 소멸이 핵심관건이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三法印과 12연기 그리고 사성제의 교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도처의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 모든 敎義의 핵심이 바로 삼독이라는 고통의 소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잡아함경』43권의 1165의 「빈두로경」에서는 삼독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너희들은 마땅히 감각기관의 문을 잘 지켜 보호하고 그 마음을 잘 거두어 잡아야 한다. 혹 눈(眼)이 색깔을 볼 때에도 그 빛깔 모양을 취하지 말고, 좋은 형상을 따라 취해 그것을 굳세게 집착하지 말라. 만일 눈(眼)을 잘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곧 세상에 대한 탐욕과 애욕과 악하고 좋아하지 않은 법이 그 마음에서 새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눈(眼)의 계율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가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에도 마찬가지로, 뜻으로 법을 알 때에도 뜻의 계율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⁸⁾

여기에 대해 『출요경』에서는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붓다(Buddha)의 가르침이다.”⁹⁾

觸熾燃 眼觸所因生者有受 若樂 若苦 非樂非苦 彼亦熾燃 以何熾燃 以慾火故煩惱熾燃 以瞋恚火煩惱熾燃 以愚癡火煩惱熾燃。”

7) 金剛智譯,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第4卷(T18, 249a), “能除貪恚癡蛇毒 以慧得出生死宅.”

8)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第43卷(T2, 311b), “告諸比丘 汝等應當守護根門 善攝其心 若眼見色時 莫取色相 莫取隨形好 增上執持 若於眼根不攝斂住 則世間貪 愛 惡不善法則漏其心 是故此等當受持眼律儀 耳聲 鼻香 舌味 身觸 意法亦復如是 乃至受持意律儀.”

9) 竺佛念, 『出曜經』 권제25, (T4, 741b).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삼독에 대한 불교의 종교교육학적 해법으로 제시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칠불통계계(七佛通誡偈)의 가르침은 크게 열 가지 악업과 열 가지 선업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모든 악한 일은 짓지 말라.’라는 것은 열 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는 것에 해당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라는 것은 열 가지 선업에 속한다.¹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제2 이구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악을 짓지 말라고 한 까닭과 악을 짓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과보가 『증일아함경』에 설해져 있어 주목된다.

그 까닭은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말은 모든 법(法)의 근본으로서 곧 일체의 착한 법을 내고, 착한 법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가섭이시여, 모든 佛世尊께서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행을 항상 닦아 청정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말은 계율을 원만하게 갖춘 것으로서 맑고 깨끗한 행이기 때문이며, ‘온갖 선을 행하라’는 말은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그릇된 뒤바뀜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곧 모든 붓다(Buddha)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은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율이 청정한데 그 뜻이 어찌 청정하지 않을 것이며, 뜻이 청정하면 뒤바뀌지 않을 것이요, 뒤바뀜이 없으면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이 사라져 37조도품의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¹¹⁾

따라서 악을 짓지 말하는 것은 모든 법의 근본으로서 일체 착한 법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연 청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도 몸과 입과 뜻을 잘 단속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잘 거두어 단속하며, 생각을 올바르게 해서 생활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을 태우지 않는 청정한 계율, 즉 칠불통계계(七佛通誡偈)를 잘 받들어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경엔 삼독이 사라진 37조도품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강기선,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8쪽.

11)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卷第一, (T2, 551a), “所以然者 諸惡莫作 是諸法本 便出生一切善法 以生善法 心意清淨 是故 迦葉 諸佛世尊身口意行 常修清淨 所以然者 諸惡莫作 戒具之禁 清白之行 諸善奉行 心意清淨 自淨其意 除邪顛倒 是諸佛教 去愚惑想 云何 迦葉 戒清淨者 意豈不淨乎 意清淨者 則不顛倒 以無顛倒 愚惑想滅 諸三十七道品果便得成就.”

Ⅲ. 『화엄경』 「십지품」에 제시된 脫三毒의 종교교육

앞장에서 상술한 ‘삼독’에 대한 의미는 『화엄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삼독과 동일한 개념¹²⁾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삼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삼독의 모습과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화엄경』 「십지품」의 교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십지품」에는 각 단계의 지마다 다양한 敎義의 방편들이 세밀하게 설해져 있다. 이러한 방편들은 악의 근원인 삼독에서 벗어나[脫] 수 있는 훌륭한 처방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 十地를 설한 이유와 十地 名에 담긴 含意

여기서는 十地를 설한 이유와 십지의 이름에 담긴 含意를 『십주비바사론』과 『십지경론』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십주비바사론』은 인도의 八宗의 종조라 불리는 용수보살(Nāgārjuna 약 150~250)이 『화엄경』의 「십지품」을 해설한 불교 논서이다. 책 명칭의 십주는 곧 화엄의 십지로, 보살이 붓다(Buddha)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10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은 십지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지인 환희지와 제2지인 이구지에 대해서만 해설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십지경론』은 『십지경』을 해석한 세친(천친Vasubandhu)보살의 저술이다. 보살의 수행 단계인 10지에 대해 설명한다. 『십지경론』은 『화엄경』 「십지품」의 내용과 동일하며, 독립된 경전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십주비바사론』에 비교해 『십지경론』에서는 十地의 열 단계의 각 항목들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십지경론』에는 십지를 설하게 된 이유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무슨 까닭에 보살 10지에 한정해서 설했는가? 열 가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무엇이 그 장애인가? 첫째 범부의 아상(我相)의 장애, 둘째 중생의 몸 등에 사된 행위를 하는 장애, 셋째 듣고 생각하고 닦는 등의 여러 법에 어두워 잊어버리

12) 삼독과 관련한 내용은 40화엄, 60화엄, 80화엄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초기불교 경전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 40화엄은 제32권 등에서, 60화엄은 제18권·24권·25권 등에서, 80화엄은 13권·18권·19권·34권·35권 등에서 설해지고 있다.

는 장애, 넷째 법을 이해하는 데 게으른 장애, 다섯째 몸이 청정하다는 아만(我慢)의 장애, 여섯째 미세한 번뇌 습기(習氣)의 장애, 일곱째 세상(細相)¹³⁾의 습기의 장애, 여덟째 무상(無相)에 行이 있는 장애, 아홉째 중생을 잘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장애, 열째 모든 법에 자재하지 못하는 장애이다.¹⁴⁾

이 경문에 의하면, 보살이 10지에 한정해서 十地를 설한 까닭은 다른 아홉 가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10가지 장애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삼독(번뇌 망상)이다. 그렇다면, 이것과 삼독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위 경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10가지 장애는 삼독의 또 다른 표현인 5가지 장애(五蓋)와 중생이 실재라고 믿는 4가지 상(四相)과 오온과 오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첫째 장애는 범부의 아상(我相)의 장애는 의법개(疑法蓋)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정립되지 않은 혼란된 생각, 선명하지 않은 불확실한 마음으로 지혜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부를 아상의 장애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아상(我相)은 『금강경』 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4가지 상(相)중의 첫 번째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이다. 따라서 아상(我相)이란, 모든 것을 자기 본위·자기중심으로 생각하여 자기가 가장 잘 낳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만 좋다고 고집하거나, 오온(五蘊)의 일시적 화합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을 실재한다고 집착하는 소견이다. 둘째 장애는 중생의 몸 등에 사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 탐욕인 탐욕개로서 오욕 중에 색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셋째 장애는 듣고 생각하고 닦는 등의 여러 법에 어두워 잊어버리는 장애이다. 마음이 흐리고 몸이 무거워 짐으로 심성을 가리는 수면개(睡眠蓋)와 법에 대하여 결단이 없어 미룸으로써 심성을 가리는 장애이다. 즉 정립되지 않은 혼란된 생각, 선명하지 않은 불확실한 마음으로 지혜가 결여된 상태인 의법개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것은 곧 삼독의 세 번째 항목인 우치이다. 넷째 장애는 법을 이해하는 데 게으른 장애로서 수면개와 도회개가 여기에 모두 해당된다. 다섯째 장애 몸이 청정하다는我慢의 장애와 여섯째 미세한 번뇌 습기의 장애, 일곱째 細相의 습기의 장애는 제7식에서 일어나는 근본번뇌의 장애로서, 이것은 삼독의 우치에 해당되는 장애이다. 여덟째의 장애인 無相에 行이 있는 장애는

13) 細相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허공과 땅·물·불·바람의 미세한 5가지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14) 天親菩薩造, 菩提流支等譯, 『十地經論』第1卷(T26, 127a), “何故定說菩薩十地 對治十種障故 何者十障 一者凡夫我相障 二者邪行於眾生身等障 三者闇相於聞思修等諸法忘障 四者解法慢障 五者身淨我慢障 六者微煩惱習障 七者細相習障 八者於無相有行障 九者不能善利益眾生障 十者於諸法中不得自在障.”

진여법성(眞如法性)은 미(迷)한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의 모양이 없는 것에 행이 있다고 여기는 장애로서, 곧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장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홉째 중생을 잘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장애와 열째 모든 법에 자재하지 못하는 장애는 도회개(掉悔蓋)와 의법개(疑法蓋)에 해당되는 장애이다. 열 가지 장애가 바로 삼독의 장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십지수행이다. 십지수행의 근본이 되는 十地の 명칭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먼저 『십지경론』에서는 십지의 명칭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위없는 자리(自利)와 이타행(利他行)을 성취하여 처음으로 성인의 경지를 증득함에 환희심이 많은 까닭에 환희지라 이름하였고, 그릇된 마음으로 계율을 범하는 번뇌의 때를 벗어나 청정한 계율을 구족한 까닭에 이구지라 이름하였다. 듣고 생각하고 닦음에 따라 법을 비추어 보면 법이 잘 나타나는 까닭에 명지라 이름하였다. 잊히지 않는 번뇌의 쇠를 지혜의 불이 잘 태우는 까닭에 염지라 하였다. 출세간의 훌륭한 지혜 방편을 얻어 제도하기 어려운 중생을 능히 제도하는 까닭에 난승지라 이름하였다. 반야바라밀행에 미흡함이 있으나 큰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까닭에 현전지라 이름하였다. 無相行을 잘 닦아 功用이 구경에 이르러 능히 세간과 2乘의 출세간도를 뛰어넘는 까닭에 원행지라 이름하였다. 보행(報行)이 완전히 익어 모습도 없고[無相] 간격도 없는 까닭에 부동지라 이름하였다. 걸림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이타행을 하는 까닭에 선혜지라 이름하였다. 큰 법신을 얻어 자재한 힘을 구족한 까닭에 법운지라 이름하였다.¹⁵⁾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地’는 ‘지혜의 지’로써 곧 10지의 지혜를 말한다.¹⁶⁾ 이 열 가지 이름에 담긴 대로 수행한다면, 누구나 佛地에 이를 수 있다고 교설하고 있다. 다음은 『십주비바사론』 제1권 「입초지품」에서 설하고 있는 십지의 함의이다.

보살이 초지에 있어서 비로소 좋은 법의 맛을 얻고 마음에 기쁨이 많기 때문에

15) 天親菩薩造, 菩提流支等譯, 『十地經論』第1卷(T26, 127b), “成就無上自利利他行 初證聖處多生歡喜 故名歡喜地 離能起誤心犯戒煩惱垢等 清淨戒具足 故名離垢地 隨聞思修等照法顯現 故名明地 不忘煩惱薪智火能燒 故名焰地 得出世間智方便善巧 能度難度 故名難勝地 般若波羅蜜行有間大智現前 故名現前地 善修無相行功用 究竟能過世間二乘出世間道 故名遠行地 報行純熟無相無間 故名不動地 無礙力說法 成就利他行 故名善慧地 得大法身具足自在 故名法雲地.”

16) 天親菩薩造, 菩提流支等譯, 『十地經論』第1卷(T26, 124c), “智慧地者 謂十地智.”

환희지라 한다. 제2지중에서는 열 가지 착한 길을 행하여 모든 때[垢]를 여의기 때문에 이구지라 한다. 제3지중에서는 널리 배움이 많고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광명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명지라 한다. 제4지 중에서는 보시와 지계와 많이 들음[多聞]이 더욱 더 늘고 거룩한 덕이 왕성하기 때문에 염지라 한다. 제5지 중에서는 공덕의 힘이 왕성하여 온갖 악마들이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난승지라 한다. 제6지중에서는 악마의 일을 막은 뒤에 모든 보살의 도와 법이 모두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현전지라 한다. 제7지중에서는 삼계를 떠나 멀고 법왕의 지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심원지라 한다. 제8지중에서는 하늘과 악마·범천·사문이며 바라문들이 그의 서원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지라 한다. 제9지중에서는 그 지혜가 점차로 밝고 고르며 부드러움이 더욱 왕성해지기 때문에 선혜지라 한다. 제10지중에서는 보살이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한꺼번에 법의 비를 내릴 수 있음이 마치 겹소 후에 큰 비를 널리 쏟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운지라 이른다.¹⁷⁾

여기서 언급된 십지수행는 환희지를 시작으로 해서 제2 이구지 → 제3명지 → 제4염지 → 제5난승지 → 제6현전지 → 제7심원지 → 제8부동지 → 제9善慧地 → 제10法雲地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권본의 『화엄경』제32권에서 10지를 모두 별개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살이 초지(初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평등한 몸을 얻나니, 그것은 법의 성품을 통달하여 잘못된 소견을 여의고 법의 평등함을 보는 까닭이며, 보살이 이지(二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청정한 몸을 얻나니, 그것은 계행을 범한 때를 여의고 온갖 계율에 성품이 항상 청정한 까닭이며, 보살이 삼지(三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끝없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욕심과 성내는 일과 아끼고 미워함을 여의고 훌륭한 선정에 머무는 까닭이며, 보살이 사지(四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닦아 모으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보리분법(菩提分法)을 항상 닦아 모으는 까닭이며, 보살이 오지(五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법의 성품 몸을 얻나니 그것은 온

17) 聖者龍樹造, 鳩摩羅什譯, 『十住毘婆沙論』第1卷, 「入初地品」第二(T26, 23a), “菩薩在初地始得善法味心多歡喜故名歡喜地 第二地中行十善道離諸垢故名離垢地 第三地中廣博多學為眾說法能作照明故名為明地 第四地中布施持戒多聞轉增 威德熾盛故名為炎地 第五地中功德力盛 一切諸魔不能壞故名難勝地 第六地中障魔事已 諸菩薩道法皆現在前故名現前地 第七地中去三界遠近法王位故名深遠地 第八地中若天魔梵沙門婆羅門無能動其願故名不動地 第九地中其慧轉明調柔增上故名善慧地 第十地中菩薩於十方無量世界 能一時雨法雨如劫燒已普樹大雨名法雲地.”

갖 참된 이치를 살펴보고 깨달아 법의 성품을 증득하는 까닭이며, 보살이 육지(六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살피고 생각함(尋伺)이 없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워 살피고 생각한 경계가 아님을 관찰하는 까닭이며, 보살이 칠지(七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헤아릴 수 없는 몸을 얻나니, 그것은 부처님 법의 방편과 공교함을 모아서 지혜와 행이 만족한 까닭이며, 보살이 팔지(八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고요한 몸을 얻나니, 그것은 온갖 번뇌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여 세간의 희롱거리 일을 떠난 까닭이며, 보살이 구지(九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허공 같은 몸을 얻나니, 그것은 몸의 모양이 가없어 온갖 것에 가득한 까닭이며, 보살이 십지(十地)에서 이 해탈에 머물면 묘한 지혜를 얻나니, 그것은 일체종지(一切種智)의 미묘한 경계를 두루 모아 원만한 까닭이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도 삼독에 대한 해결방안[처방전]도 단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10지를 모두 별개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2. 十地에 나타난 三毒의 폐해

「십지품」의 환희지에서 설법자인 금강장보살은 다음과 같이 삼독의 폐해에 대해서 60『화엄경』은 다음과 같이 염려와 경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범부들은 그 마음이 그릇된 견해에 떨어져 무명의 어둠이 지혜의 눈을 가리므로,
언제나 교만의 당기를 세우고 애욕의 그물에 걸리어 아침과 속임을 따르면서 항상
탐욕과 질투를 품고는, 다음 몸이 태어날 곳의 인연을 지으며, 탐욕과 분노와 우치

18) 般若譯, 『大方廣佛華嚴經』제32권(T10, 808a), “菩薩初地, 住此解脫得平等身 何以故 通達法性, 離諸邪曲, 見法平等故 菩薩二地 住此解脫得清淨身 何以故離犯戒垢 於一切戒性常清淨故 菩薩三地 住此解脫得無盡身 何以故 離欲瞋恚慳嫉惡法 住諸勝定故 菩薩四地 住此解脫得修集身 何以故常勤修集一切諸佛菩提分法故 菩薩五地 住此解脫得法性身 何以故觀察覺悟一切諦理 證法體性故 菩薩六地 住此解脫得無尋伺身 何以故觀緣起理 難解難知 非尋伺境界故 菩薩七地 住此解脫得不思議身 何以故 集諸佛法 方便善巧 智行滿足故 菩薩八地 住此解脫得寂靜身 何以故 一切煩惱不復現行 離諸世間戲論等事故 菩薩九地 住此解脫得虛空身 何以故 身相無邊 遍滿一切故 菩薩十地 住此解脫得妙智身 何以故 一切種智微妙境界 普集圓滿故.”

등을 많이 모아 갖가지 무거운 업을 일으키고, 원한의 사나운 바람이 죄 짓는 마음의 불을 붙여 항상 불꽃이 왕성하게 한다.¹⁹⁾

이 경문은 범부가 마음이 사건에 떨어져서 고취(苦趣)에 태어나 상속이 끊이지 않음을 밝힌 대목이다.²⁰⁾ 즉 삼독으로 말미암아서 무거운 업(業)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바람’은 번뇌와 같으며, 번뇌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바람이 불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²¹⁾고 표현한 것이다.

분노한 바람으로 마음[心識]의 불을 붙여서 성한 불꽃이 쉬지 않으며, 모든 짓는 업이 뒤바뀌게 되며, 욕계의 폭류[欲流], 색계의 폭류[有流], 무명의 폭류[無明流], 소견의 폭류[見流]가 서로 계속하여 마음[心]·뜻[意]·식[識]의 종자를 일으켜 삼계의 밭에서 다시 쉼의 싹이 틈다.²²⁾

여기서 원한의 바람이 죄 지은 마음의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해서 번뇌의 업을 일으키고, 삼계의 밭에 ‘썩’라는 업을 유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瞋(분노)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정서라고 할 수 있다.²³⁾ 우리는 흔히 업을 지을 때는 서로 해를 가하게 된다. 이 삼독에 대해 이통현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간탐(慳)과 질투(嫉) 두 가지는 상계무명이니 악도의 생사와 함께 하면서 다시 승인(勝因)을 더하기 때문에 경문에서도 “마음이 간탐과 질투가 상응하면서 버리질 않기에 늘 모든 趣의 생을 받는 인연을 짓는다.”고 한 것이다. 탐욕과 진애와 우치는 집업무명이니, 이 때문에 경문에서도 “탐애우치(貪恚愚痴)로 모든 업을 쌓아서 밤낮으로 증장한다”고 한 것이다. 분한무명은 성냄과 더불어 인을 지으니, 이 때문에

19)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3卷(T9, 546b), “凡夫心墮邪見 無明癡冥 蔽其慧眼 常立憍慢幢 墮在渴愛網 隨順諂曲 常懷慳嫉 而作後身生處因緣 多集貪欲 瞋恚 愚癡 起諸重業 嫌恨猛風 吹罪心火 常令熾然.”

20)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4卷(T36, 883a), “明凡夫心墮邪見而生苦趣相續不斷分.”

21)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1卷(T35, 311c), “煩惱如風 思心如火 煩惱動心如風吹火.”

22)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4卷(T10, 182c), “而諸凡夫心墮邪見 無明覆翳 立憍慢高幢 入渴愛網中行 諂誑稠林不能自出 心與慳嫉相應不捨 恒造諸趣受生因緣 貪 恚 癡積集諸業日夜增長 以忿恨風吹心識火熾然不息 凡所作業皆顛倒相應 欲流 有流 無明流 見流 相續起心意識種子 於三界田中復生苦芽.”

23) 이자랑, 「계율에 나타난 분노의 정서와 慈愛(metta)를 통한 치유」 『韓國禪學』제28호(서울: 한국선학회, 2011), 2쪽.

경문에서도 “분한의 바람으로 심식의 불을 붙어서 치열히 타올라 쉬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⁴⁾

이 경문에서 언급된 삼독번뇌는 상계무명(常計無明)과 집업무명(集業無明) 그리고 분한무명(忿恨無明)이다. 상계무명은 간탐(慳)과 질투(嫉) 때문에 모든 취의 생을 받는 인연을 강조하였고, 집업무명은 탐욕과 진애와 우치로 모든 업을 쌓는 인연을, 그리고 분한무명은 성냄의 인연을 지어 심식의 불이 쉬지 않는다고 하는, 분노의 불길의 무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상계무명은 탐욕을 강조하고 있고, 분한무명은 분노의 불을 강조한 것이라면, 집업무명은 삼독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중에 고타의 생을 받는 것에 18가지 번뇌가 있는데, 모두 두 가지 번뇌에 의거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는 근본 무명이 긴 밤에 걸쳐 가리는 것이며, 둘은 邪見이 경계를 좇아서 늘 유전하면서 쉬지 않는 것이다.²⁵⁾

라고 『신화엄경론』에서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그릇된 견해는 바로 삼독의 어리석음이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름과 물질[名色]이 저와 함께 나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름과 물질[名色]이 증장하여 여섯 군데의 기관[六處聚落]을 내고, 그 속에서 서로 대하여 접촉함[觸]을 내며, 접촉함으로 받아들임[受]을 내고, 받아들임으로 사랑함을 내고, 사랑이 자라서 취함[取]을 내고, 취함이 늘어서 有를 내고, 유가 났으므로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움과 시끄러움을 내나니, 이 같은 중생이 고취(苦聚)를 생장한다.²⁶⁾

이 경문의 내용은 12인연의 갈래가 있는 것이 태어남의 인이 됨을 밝힌 부분이다.²⁷⁾

24)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4卷(T36, 883c), “如慳嫉二種 是常計無明 與惡道生死更加勝因 是故經云 心與慳嫉相應不捨 恒造諸趣受生因緣 如貪恚愚癡 是集業無明 是故經云 貪恚愚癡積集諸業日夜增長 如忿恨無明 與嗔作因 是故經云 以忿恨風吹心識火熾然不息.”

25)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4卷(T36, 883b), “此段中所受苦生有十八種煩惱 皆依二種煩惱起故 一根本無明為長夜所覆 二邪見逐境常流轉不息.”

26)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4卷(T10, 182c), “所謂：名色共生不離 此名色增長 生六處聚落 於中相對生觸 觸故生受 因受生愛 愛增長故生取 取增長故生有 有生故有生死憂悲苦惱 如是眾生生長苦聚.”

27)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4卷(T36, 883a), “明十二因緣有支為生因分.”

12연기는 무명에서부터 시작하여 老死까지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12단계로 밝힌 것이다. 18가지 번뇌무명은 12연기의 증장무명, 진윤무명, 조림무명, 상계무명, 집업무명, 분한무명, 상류무명이다.²⁸⁾ 또 12연기와 사견[삼독] 등과의 관계를 언급해보면, 12연기의 명색이 5근[안·이·비·설·신]과 촉(觸)·수(受)·상(想)·행(行)이 모두가 마음을 낳고 뜻을 취하는 것으로 주(主)를 삼으며, 이 같은 9연(緣)²⁹⁾이 똑같이 일어나서 경계를 요별함을 식(識)이라 이름하여, 이 십사(十事)³⁰⁾를 모두 무명이라 이름붙이고 모두 사견(邪見)이라 이름붙이는 것이고, 일체 번뇌를 지어서 마음과 경계를 미혹함을 무명이라 칭하는 것이며, 경계[보이는 대상인 육경]란 것은 명색이 이에 해당되니, 6근이 경계[보이는 대상인 육경]를 대하면 사견[삼독중의 우치]이 따라 생긴다.³¹⁾ 따라서 6근과 6경, 6식, 12연기와 삼독, 9연(緣), 십사(十事)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십지품」에서 제시한 三毒에 대한 처방전

여기서는 이품의 각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독에 대한 처방전[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경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환희지의 처방전

초지인 환희지에는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敎說들로써 제시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0가지 大願, 대자비심의 보시행, 일체선근의 성취, 열 가지 청정한 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대자비심의 보시행과 일체선근의 성취에 대해서만 살펴해보도록 한다. 먼저 제1 환희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삼독의 두려움을 떠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환희지보살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실천행[십대원]과 10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회구하는 원(願)을

28)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4卷(T36, 883b), “增長無明 津潤無明 稠林無明 常計無明 集業無明 忿恨無明 常流無明.”

29) 9연(緣)이란 5근과 촉(觸)·수(受)·상(想)·행(行)을 말한다.

30) 십사(十事)란, 5근[안·이·비·설·신]과 촉(觸)·수(受)·상(想)·행(行)과 식(識)을 말한다.

31)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4卷(T36, 883c-884a). “如是無明名色 對五根 有觸受想行 總以心生意取為主 如是九緣同起了境名識 以此十事總名無明 總名邪見 作一切煩惱迷心及境 名曰無明 境者 名色是也 六根對境邪見隨生.”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삼독의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는 대원(大願)의 마음인 것을 말한다. 이 열 가지 서원의 특징을 보면, 自利行[스스로 궁극의 깨달음을 구해 나가는 실천]과 이타행[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사회적 실천]이 근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실천 행에 담긴 종교적 교육적 의미는 삼독을 해탈하고 진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끝없는 보살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의 불지(佛智)를 구해 가는 마음과 모든 사물에 대한 삼독의 마음[욕구]을 버리는 일이다. 이것이 제1 환희지의 종교적 특징이며, 이 두 가지는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를 구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삼독의 욕구를 버리는 일이며, 거꾸로 모든 삼독의 욕구를 버린다는 사실은 최고의 지혜[佛智]만을 향해 정신을 집중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고의 지혜란, 자리행·이타행을 원만히 성취해 가는 지혜이므로, 자기의 모든 삼독의 욕망을 버리는 일은 저절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의 이타행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십지품」에서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체 선근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교설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이 大悲로 으뜸을 삼는 광대한 뜻을 저해할 이가 없고, 점점 부지런히 모든 선근을 닦아서 성취하면, 이른바 신심이 늘어나고,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고, 지혜[解]가 청정하고, 믿음이 결정하고,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내고, 크게 인자함을 성취하고, 고달픈 마음이 없고, 부끄러움으로 장엄하고, 화순함을 성취하고, 마음에 의탁함이 없고, 이양이나 명예나 공경 받기를 탐하지 않고, 온갖 살아갈 물품을 구하지 않고, 보물 같은 마음을 내어 만족함이 없다. 두려움 없음[無所畏]과 모든 아침과 속임을 여의고, 말한 대로 행하고, 진실한 말[眞實語]을 항상 두호하고, 여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고,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고,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어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위가 되는 수승한 도[上上殊勝道]를 항상 구한다.³²⁾

이상의 경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근을 증장하는 방법은 쉬운 듯하면서도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바꾸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삼독으로 물든 혼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깨끗이 다스리는 地의 법[淨治地法]을 성취하여 보살의 환희지에 편안히 머무를

32)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4卷(T10, 181b), “此菩薩以大悲為首 廣大志樂無能沮壞 轉更修一切善根而得成就 所謂 信增上 多淨信 解清淨 信決定 發生悲愍 成就大慈 心無疲懈 慚愧莊嚴 成就柔和 心無依著 不耽著利養 名聞 恭敬 不求一切資生之物 生如寶心無厭足 無畏離諸諂誑 如說能行 常護實語 不污如來家 不捨菩薩戒 常求上上殊勝道.”

수³³⁾ 있을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희지의 십대원(十大願)은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교설이다. 환희지보살의 이 열 가지 대원을 법장의 『화엄경탐현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공양원(供養願)은 모든 붓다(Buddha)에게 공양하겠다는 서원 ②수지원(受持願)은 수승하고 미묘한 붓다(Buddha)의 바른 법을 항상 수지하겠다는 서원 ③전법륜원(轉法輪願)은 붓다(Buddha)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서원 ④수행원(修行願)은 보살의 바른 행을 닦아 수행하겠다는 서원 ⑤성취원(成就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겠다는 서원 ⑥승사원(承事願)은 모든 불국토에 가서 붓다(Buddha)를 친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며 바른 법을 듣고자 하는 서원 ⑦ 정토원(淨土願)은 청정한 국토에 정법을 일으켜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서원 ⑧불리원(不離願)은 항상 불·보살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 ⑨이익원(利益願)은 항상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되 조금도 집착함이 없게 하겠다는 서원 ⑩정각원(正覺願)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이다.³⁴⁾

이상의 10가지 서원 가운데 ①공양원·②수지원·③전법륜원은 자리행을 나타내고, ④수행원·⑤성취원·⑥승사원·⑦ 정토원·⑧불리원은 이타 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⑨이익원·⑩정각원은 자리와 이타를 구축하면서 자리와 이타를 초월한 서원이라고 한다.³⁵⁾ 이러한 10가지 서원을 낸 후, 10가지 마음인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방일하지 않는 마음, 적멸한 마음, 곧은 마음, 윤택한 마음, 성내지 않는 마음, 흐리지 않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³⁶⁾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10가지 마음은 약간씩 순서를 달리해서 제4염혜지까지 꾸준하게 중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초지인 환희지에서 설해진 10대원은 종교 교육적 의미의 보살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불교라는 종교의 교육적 특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것 외에도 환희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자비의 마음으로 보시 행을 닦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33)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4卷(T10, 181c), “菩薩成就如是淨治地法 安住菩薩歡喜地.”

34)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1卷(T35, 306a-b).

35) 이도업(1998), 551.

36)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4卷(T10, 182b), “菩薩發如是大願已 則得利益心 柔軟心 隨順心 寂靜心 調伏心 寂滅心 謙下心 潤澤心 不動心 不濁心.”

이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경지이다. 따라서 十大願과 보시 등의 실천행은 삼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것이 일체 지혜를 구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離垢地の 처방전

이구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구지에 들어가는 10가지 마음과 삼취정계(三聚淨戒)이다. 여기서 종교교육의 일환으로 설해지고 있는 것이 10가지 마음이다. 여기서 이구지보살이 중생을 삼독으로부터 교화하기 위해 제시한 10가지마음은 두 종류가 있다.

①보살이 중생에게 대하여 이익케 하려는 마음, 안락케 하려는 마음,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딱하게 여기는 마음, 거두어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자기와 같다는 마음, 스승이라는 마음, 대사(大師)라는 마음을 내야 한다.³⁷⁾

②열 가지 곧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부드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조화된 마음이며, 셋째는 견디어 받는 마음이요, 넷째는 방일하지 않은 마음이며, 다섯째는 고요한 마음이요, 여섯째는 진실한 마음이며, 일곱째는 잡되지 않은 마음이요, 여덟째는 탐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마음이며, 아홉째는 홀륭한 마음이요, 열째는 큰마음이니, 보살은 이 열 가지 마음으로 제이지에 들어갈 수 있다.³⁸⁾

①의 내용은 10가지 마음은 모두 열 가지의 중생을 자비롭게 생각하는 마음이라 면, ②의 이 10가지 마음은 삼취정계(三聚淨戒)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이 10가지 곧은 마음[直心]은 총체적인 것이다. 개별적인 것의 10가지 마음 중에서 처음 여섯인 부드러운 마음·조화된 마음·견디어 받는 마음·방일하지 않은 마음·고요한 마음·진실한 마음은 섭률의계이며, 그 다음의 둘인 잡되지 않은 마음·탐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마음은 섭선법계이며, 마지막 둘인 홀륭한 마음·큰마음은 섭중생계이다.³⁹⁾ 이 삼취정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삼취정계는 범어 śīla-trividha로, 대승 보

37)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T10, 186a), “菩薩復於一切眾生 生利益心 安樂心 慈心 悲心 憐愍心 攝受心 守護心 自己心 師心 大師心.”

38)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4卷(T9, 548c), “當生十種直心 何等為十 一柔軟心 二調和心 三堪受心 四不放逸心 五寂滅心 六真心 七不雜心 八無貪吝心 九勝心 十大心 菩薩以是十心得入第二地.”

39)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1卷(T35, 316c), “就正顯中 直心是總 別中十心內 初六律儀戒 次二攝善戒 後

살의 계법(戒法)이다. 그 종류에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섭률의계, 둘째는 섭률의계, 셋째는 섭중생계이다. 불교의 모든 계법(戒法)이 다 이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攝’이라 하고, 그 戒法이 본래 청정하므로 ‘淨’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마음과 삼취정계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 여기에 함의된 내용을 『화엄경』의 주석서를 통해 살펴보면, 중국 화엄의 완성자로 불리는 법장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므로 ‘유연(柔軟)’이라 이름한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비록 직심으로 계를 지녀도 마음이 강인하여서 함께 머무르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한다.’등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조화(調和)’라고 이름한다. 이른바 거스르고 수순하는 경계에 대하여 자유롭게 계를 지녀서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자재력’등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또한 戒에 집착하는 번뇌가 혼잡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셋째, 능히 다른 사람의 번뇌를 받기 때문에 ‘감수(堪受)’라고 이름한다. 논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다. 넷째, 능히 미세한 악을 제거하므로 ‘불방일’이라 이름한다. 이른바 모든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여 잘못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잘못 범하는 것도 오히려 여의거늘 하물며 고의로 범함이 있겠는가. 이것과 바른지(正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석한다. 이는 뜻을 지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바른지(正地)는 성품이 스스로 잘못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스스로 계를 믿고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벼이 하지 않으므로 ‘적멸’이라 이름한다. 또 이렇게도 해석한다. 계의 참모습[實相]을 얻어서 마음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니, ‘적멸’이라 이름한다. 여섯째,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굳건히 지녀서 깨뜨리지 않으므로 ‘진(眞)’이라 이름한다. 이른바 지니기 어려운 계라고 해서 괴로움을 참고 이를 지닐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마치 세상에 진금(眞金)은 불에 태우거나 때리거나 갈더라도 끝내 변함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섭률의계에 속한다. 또한 이것은 섣법계에 속하기도 한다.⁴⁰⁾

二攝生成.”

- 40)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1卷(T35, 316c), “前中一不惱他故名柔軟 自有人雖直心持戒然心剛強共住惱他。今此反彼故名共喜樂等也 二自不起惱故名調和。謂於違順任運持戒不為惑率故名自在力等 又不為戒取煩惱所雜故也 三能受他惱故名堪受 論中無此 四能除細惡名不放逸 謂善護諸根不令誤犯 誤犯尚離 況有故此與正地何別 釋此作意不誤 正地性自不誤 五不恃己戒自高輕彼故名寂滅 又釋得戒實相 心無所執故不自高 名為寂滅 六遇難堅持不壞名真 謂無有難持之戒 而不能忍苦持之 如世真金燒打磨等終不改變 又釋此亦屬攝善法戒。”

위에서 언급한 이 10가지 마음 중에서 6가지 마음을 섭률의계라 한 이유를 요약해 본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유연’이라 하고,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조화’라하고, 능히 다른 사람의 번뇌를 받기 때문에 ‘감수’라 하고, 능히 미세한 악을 제거하므로 ‘불방일’이라하고, 스스로 戒를 믿고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버이 하지 않으므로 ‘적멸’이라 하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굳건히 지녀서 戒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眞’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섭률의계는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규율위의[規律威儀] 등을 통한 윤리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섭선법계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둘은 섭선법계에 속함을 밝힌다. 일곱째는 선을 닦아서 싫어함이 없으며, 게으름에 뒤섞이지 않으므로 ‘부잡(不雜)’이라 이름한다. 『십지경론』의 제4권 중에서 “얻는 공덕에 대하여 싫어하는 마음이나 만족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뜻을 표방하는 것이다. ‘청정한 계에 의지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계를 떠나는[離戒] 것에 의지하는 것이다. ‘다시 뛰어남을 구한다.’ 등은 닦아 나아가서 선을 거두어들이므로 ‘수승계(勝戒)’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아래의 『십지경론』의 제4권에서 “섭선법계가 청정하다는 것은 계를 떠나는[離戒] 것의 청정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를 ‘수승(勝)’이라 이름한 것이다. ‘적정을 즐긴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증장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제48권에서 “일곱째, 그렇게 닦음에 수순하기 위해서 樂處를 멀리 여의는 意樂이다”라고 하였다. 여덟째, 선을 닦아서 붓다(Buddha)을 구하고 인천을 원하지 않으므로 ‘不貪’이라 이름한다.⁴¹⁾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을 닦아서 싫어함이 없으며, 게으름에 뒤섞이지 않으므로 ‘不雜’이라 하고, 선을 닦아서 붓다(Buddha)을 구하고 인천을 원하지 않으므로 ‘不貪’이라 한다는 것이다. 삼취정계의 두 번째 항목인 섭률의계는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總攝)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41)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1卷(T35, 316c), “瑜伽住品云 六者於諸妙善菩提分法常勤修習 意樂下二明攝善戒 七修善無厭 不雜懈怠故名不雜 論中所得功德不生厭足者總標意也 依淨戒者 依前離戒 更求等者 進修攝善故名勝戒 下論云攝善法戒淨者 於離戒淨為上故此名勝也 樂寂靜者增長此心故 瑜伽云 七者即於復修為隨順故 樂處遠離意樂也 八修善求佛 不願人天故名不貪”

아래의 둘은 십중생계이다. 아홉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이익 되게 하므로 ‘勝’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른바 원컨대 세상에 언제나 머물러서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므로 ‘3有를 끊지 않는 원’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는 대비이니,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8권에서 “하열한 乘을 멀리 여의고 나아가 대승의 의락을 증득한다”고 하였다. 열째, 智心에는 염오가 없으므로 ‘大’라고 이름한 다. 이른바 모든 유정에 수순하며 중생을 거두어들이면서도 그 內心에는 언제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는 큰 지혜이니 세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8권에서 “모든 유정의 義利를 짓고자 하는 의락이다”라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 중에는 앞 지위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10心の 의락을 일으키며, 이 경에서는 2地の 처음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역시 서로 비슷한 것이다.⁴²⁾

마지막 십중생계는 일체의 중생을 救濟・教化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윤리기준이다. 이 십중생계는 불교의 사홍서원의 첫 번째 願인 고통 세계의 중생들은 그 수가 한이 없다 할지라도, 다 제도하려는 서원[衆生無邊誓願度]이다. 따라서 제2地の 핵심내용이 되는 이 삼취정계는 과거 7명의 붓다(Buddha)가 공통적으로 禁戒의 근본으로 삼는 偈文인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붓다(Buddha)의 가르침이다.”⁴³⁾라는 七佛通戒偈의 4句⁴⁴⁾에 대당되는 내용으로서 三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제2地에서 삼취정계의 각 항목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즉, 십률의계인 10가지 선업과 십선법계인 5종류의 열 가지 선을, 그리고 십중생계인 이익중생이 그것이다. 또 『십지경론』 제4권에서는 삼독 중의 성내는 장애를 벗어나는 對治法에 따라, 5가지 중생으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42)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1卷(T35, 317a), “下二攝生成 九悲心益生故名爲勝 謂願常在世 攝化眾生名爲不斷三有之願 此是大悲不住涅槃 瑜伽云 遠離下乘趣證大乘意樂也 十智心無染故名爲大 謂雖隨順諸有攝生 而其內心常不染世 此是大智不住世間 瑜伽云 欲一切有情義利意樂 又瑜伽中於前地未起此十心意樂 此經二地初亦相似也.”

43)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卷第一, (T2, 551a), “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尊者法救撰, 維祇難等譯, 『法句經』卷下 「述佛品」(T4, 567b). ; 義淨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第26卷(T23, 766a) ; 『清淨道論』第1卷(『漢譯南傳大藏經』67(N로 약칭), 6a) ; 『毗尼作持續釋』第8卷(X41, 437c) 등이 있다.

44) 이 4구에 대한 내용은 경전 도처에서 설해져 있다. 여기서는 『법구경』이다.

첫째는 원수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니, 경의 ‘항상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과 같다. 둘째는 악행을 하는 중생들에 대한 마음이니, 경의 ‘편안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과 같다. 셋째는 가난하여 구걸하고 고통 받는 중생들에 대한 마음이니, 경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즐거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과 같다. 넷째는 번뇌에 물든 곳의 즐거운 중생들에 대한 마음이니, 경의 ‘이롭고 윤택한 마음’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는菩提心を 낸 중생에 대해 한량없는 이익을 주는 行을 하지만 중도에 수고를 다하여 지치고 게으른 생각이 없는 것이다.⁴⁵⁾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마음 등의 교설은 화내는 장애[삼독의 瞋]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된다.

3) 發光地の 처방전

이 제3發光地를 “뛰어난 선정[勝定]과 大法の 總持를 성취하여 능히 가없이 묘한 지혜의 빛을 발하므로 발광지라고 한다. 해석해말하면, 뛰어난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修慧의 빛을 얻고 총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聞慧의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⁴⁶⁾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60화엄에서는 ‘明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중에 『십주비바사론』제1권의 해석을 살펴보면, “널리 많이 배워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여 능히 照明을 지으므로 명지라고 이른다.”⁴⁷⁾라고 하였다.

삼독에 대한 해결방편으로 이 地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르침은 사섭법 중 이행섭과 10바라밀[특히 인욕바라밀], 그리고 유위법[삼법인], 중생을 애민하게 여기는 10가지 마음, 사무량심 등이다. 여기서는 종교 교육적 함의가 큰, 보살이 삼독에 물든 일체중생에게 내는 10가지 애민심에 대해서 살펴보자.

무엇이 열인가. 중생들이 고독하여 의지할 데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이 빈궁하여 곤란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삼독의 불에 타는

45) 天親菩薩造, 菩提流支譯, 『十地經論』第4卷(T26, 147c), “依離瞋障對治, 為五種眾生說 一於怨讐所生慈愍心 如經 常起慈心故 二 於惡行眾生所 如經「生安隱心故 三 於貧窮乞匄及苦眾生所 如經「生憐愍心 樂心故 四於樂眾生所煩惱染著處 如經利潤心故 五於發菩提心眾生所 無量利益行中勤勞疲倦故”

46)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2卷(T35, 323c), “成就勝定大法總持 能發無邊妙慧光故名發光地 解云 由得勝定發修慧光 由得總持發聞慧光.”

47) 聖者龍樹造, 鳩摩羅什譯, 『十住毘婆沙論』第1卷(T26, 23a), “第三地中廣博多學為眾說法能作照明故名為明地.”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모든 업보의 옥에 갇힘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번뇌의 숲에 막혔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잘 살펴보지 못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선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생사의 물결에 따르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해탈하는 방법을 잃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열이다.⁴⁸⁾

이 제3發光地에서 종교 교육적 함의가 큰 10가지 애민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10가지 애민의 마음과 더불어 이 地에 들기 위해서 제시된 10가지 마음이 있어 주목된다.

제 삼지를 얻으려면 열 가지 깊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 열 가지란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요, 둘째는 씩씩하고 예리한 마음[충명한 마음]이며, 셋째는 싫어하는 마음이요, 넷째는 욕심을 떠난 마음이며, 다섯째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요, 여섯째는 견고한 마음이며, 일곱째는 매우 밝은 마음이요, 여덟째는 만족이 없는 마음이며, 아홉째는 훌륭한 마음이요, 열째는 큰마음이다. 보살은 이런 열 가지 마음으로 제삼지에 들어갈 수 있다.⁴⁹⁾

법장은 10가지 마음의 처음의 둘이 하나의 對句가 된다고 하면서 10가지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허물을 떠나는 마음이다. 이른바 앞의 이구지에서 언급한 삼취정계에 의지하여 이러한 깊은 생각으로 취선(趣禪)의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는 쉼에 머무는 마음이다. 이른바 스스로 대승의 법에 의지하여 굳건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까닭에 맹리심(猛利心)이라 한 것이다. 3가지마음(三心)은 허물을 떠나는 것을 뜻한다. 허물을 떠나는 중에 장래의 욕망을 싫어하기 때문에 염심(厭心)이라하고, 현재의 욕망을 버리기 때문에 이욕심(離欲心)이라고 한 것이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싫어하는 것만으로 좋으나 현재는 이미 받고 있으므로 버려야 하는 것이

48)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5卷(T10, 187b), “何等為十 所謂 見諸眾生孤獨無依 生哀愍心 見諸眾生貧窮困乏 生哀愍心 見諸眾生三毒火然 生哀愍心 見諸眾生諸有牢獄之所禁閉 生哀愍心 見諸眾生煩惱稠林恒所覆障 生哀愍心 見諸眾生不善觀察 生哀愍心 見諸眾生無善法欲 生哀愍心 見諸眾生失諸佛法 生哀愍心 見諸眾生隨生死流 生哀愍心 見諸眾生失解脫方便 生哀愍心 是為十。”

49) 佛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4卷(T9, 551a), “欲得第三地 當以十種深心 何等為十 一淨心 二猛利心 三厭心 四離欲心 五不退心 六堅心 七明盛心 八無足心 九勝心 十大心 菩薩以是十心得入第三地。”

다. 행을 짓는 중에서는 이른바 앞 지위[제2지]의 자기 분(自分)의 닦는 바를 버리지 않고서 이 지위의 승진분(勝進分)의 행을 일으키므로 不退心이라고 한다. 자타(自地)의 번뇌에 의지하여 능히 파괴시킬 수 없으므로 견심(堅心)이라 한 것이다. 처음 쉼의 바탕[體]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출입에 자재한 것을 명성심(明盛心)이라 이름한 것이다. 후에 用이 이루어지는 연고로 생을 받음에 자재하여 비록 下地에 태어나더라도 定の 작용을 잃지 않는 순후(淳厚)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족심(無足心)이라 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순후함이란, 쉼의 해탈력에 따르지 않고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이러한 순후한 마음이다. 大智로 말미암아서 번뇌에 오염되지 않으므로 승심(勝心)이라 이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대비로써 거두어서 교화하여 有를 끊지 않으므로 大心이라 이름한다고 하는 것이다.⁵⁰⁾ 법장의 해석처럼,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10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삼독에 물들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지에서는 삼독에 물들지 않는 10가지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살의 인욕하는 마음과 미묘한 마음, 깨뜨려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흐리지 않는 마음, 높고 낮음이 없는 마음, 모든 하는 일에 갇음을 바라지 않는 마음, 남의 하는 일에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 덕을 갚으려는 마음, 아첨하거나 간사하지 않은 마음과 물들거나 어지럽지 않은 마음 등이 다 더욱 밝고 깨끗해진다.⁵¹⁾

이 명지[發光地]에 머물면 세 가지 결박을 모으지 않기 때문에, 사된 탐욕과 사된 분노와 사된 어리석음을 끊고 모든 선근이 더욱 밝고 깨끗해진다.⁵²⁾고 경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 열 가지 마음의 실천이 바로 三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삼독에 대한 처방전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50)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2卷(T35, 324b), “就十心中 初二一對 一離過心 謂依前淨戒起此深念趣禪淨心 二住善心 謂依自所住大乘之法堅心不動故名猛利 三離過 離過中厭當來欲故名厭心 捨現在欲故名離欲心 當來未起但可懸厭 現在受捨 論名不貪 造行中謂不捨前地 自分所修 進起此地勝進之行故名不退心 自地煩惱不能破壞名為堅心 初成善體 後成善用 體成故出入自在名明盛心 後用成故 受生自在 雖生下地 不失定用 由此淳厚名為無足 成不隨禪解脫力生即此淳厚心也 以大智故煩惱不污故名勝心 後一利生 以大悲攝化不斷諸有故名大心.”

51) 佛駄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4卷(T9, 552b), “是菩薩忍辱心 美妙心 不壞心 不動心 不濁心 不高下心 一切所作不望報心 他少有所作當生報心 不諂曲心 不染亂心 轉勝明淨.”

52) 佛駄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4卷(T9, 552b), “菩薩亦如是住在明地 不集三縛故 斷於邪貪 邪瞋 邪癡 一切善根轉增明淨.”

4) 焰慧地와 難勝地の 처방전

먼저 4地에서 삼독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37조도품이다. 37조도품은 사념처와 사정근, 사신족(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칠각분), 팔정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사정근에 제시된 경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제사지에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안의 몸을 관찰하되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正勤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고, 바깥 몸을 관찰하되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正勤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고, 안팎 몸을 관찰하되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正勤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며, 안의 느낌과 바깥 느낌과 안팎의 느낌을 관찰하고 안 마음과 바깥 마음과 안팎 마음을 관찰하며, 안의 법과 바깥 법과 안팎의 법을 관찰하되 그것들을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正勤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앨 수 있다.⁵³⁾

법장은 이 정근(正勤)에 대해 처음의 두 가지 정근은 두 가지 악을 끊는 止惡行이고, 뒤의 두 가지 정근은 두 가지 선을 부지런히 닦는 作善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넷은 모두 다 부지런히 경책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분별하므로 정근(正勤)이라 이름한다.⁵⁴⁾ 그렇기 때문에 경에서는 일심으로 바르게 노력(正勤)하여 삼독을 없애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이 바른 소견[正見]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한다. 바르게 생각함[正思惟]과 바른말[正語]과 바른 업[正業]과 바른 생활[바른 직업正命]과 바른 정진[正精進]과 바른 생각[正念]과 바른 선정[正定]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며 멸함을 의지하여 버리는 데로 회향한다.⁵⁵⁾

53)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4卷(T9, 553c), “住是第四地 觀內身循身觀 精勤一心 除世間貪憂 觀外身循身觀 精勤一心 除世間貪憂 觀內外身循身觀 精勤一心 除世間貪憂 觀內受 外受 內外受 內心 外心 內外心 內法 外法 內外法循法觀 精勤一心 除世間貪憂.”

54)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2卷(T35, 335b), “謂初二勤斷二惡是止惡行 後二勤修兩善是作善行 此四皆由策勤方辨故名正勤.”

55)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4卷(T9, 554a). “是菩薩修行正見 正思惟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 依止厭 離 滅 迴向涅槃.”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항목인 올바르게 보는 안목인 正見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시작이 중요한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올바르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乃至 올바르게 집중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어떤 욕구, 생각, 정서 등이 오고 가는지를⁵⁶⁾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문에 대해 법장은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8정도는 보살도이다. 첫째 올바른 견해(正見)은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는 것이며, 둘째 올바른 사유(正思惟)는 一切智를 올바로 염하여 허망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셋째 올바른 말(正語)은 성스러운 가르침에 따라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허물을 떠나는 것이며, 넷째 올바른 행위(正業)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교화함에 일찍이 제때를 놓친 적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올바른 직업(正命)은 네 가지 聖種에 안주하여 두타행의 공덕을 성취하고 청정한 위의를 구축하여 모든 악을 멀리 여의는 것이며, 여섯째 올바른 노력(正精進)은 모든 고행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며 부처님의 10력을 닦아서 결림이 없는 것이다. 일곱째 올바른 기억(正念)은 모두 능히 일체 음성을 기억하고 세간의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소멸하는 것이며, 여덟째 올바른 집중(正定)은 선교방편으로 하나의 삼매에서 보살의 불가사의한 법문의 모든 삼매를 내는 것이다.⁵⁷⁾

여기서 제시된 팔정도는 인간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덕목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것만 잘 실천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삼독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제5지인 난승지에 제시되고 있는 가르침을 사성제의 경문을 통해 살펴보자.

보살이 이 난승지에 머물면 보리의 법을 잘 닦고 깊은 마음이 청정하며, 더욱 훌륭한 법을 구하기 때문에 곧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또 그 보살은 큰 원력을 얻고,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생각하는 지혜와 도의 힘을 얻고, 복과 지혜를 닦고 버리지 않으며, 방편을 내고 더욱 훌륭한 도와 최상의 지위에서 밝게 관찰하는 법을 얻으려 하고, 부처님의 神力으로 보호를 받으며, 결정코 물러나지 않

56) 박미옥·고진호,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종교교육학연구』49호(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08쪽.

57)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2卷(T35, 335c), “是菩薩善知世諦 善知第一義諦 善知相諦 善知差別諦 善知說諦 善知事諦 善知生起諦 善知盡無生諦 善知入道諦 善知一切菩薩次第成就諸地起如來智諦.”

는 마음을 낸다. 그 때문에 이것은 고통이라는 이치[苦聖諦]요, 이것은 고통의 쌓임의 이치[苦集諦]며, 이것은 고통이 멸하는 이치[苦滅諦]요, 이것은 고통을 멸하는 길의 이치[苦滅道諦]라고 여실히 안다.⁵⁸⁾

이 경문의 내용은 사성제의 진실한 법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다.⁵⁹⁾ 즉, 사성제를 잘 알아 실천하면 난승지에 머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살은 세속의 이치[世諦]를 잘 알고 최상의 이치[第一義諦]를 잘 알며, 형상의 이치[相諦]를 잘 알고 차별의 이치[差別諦]를 잘 알며, 말의 이치[說諦]를 잘 알고 일의 이치[事諦]를 잘 알며, 생기는 이치[生起諦]를 잘 알고 이미 다하여 생김이 없는 이치[盡無生諦]를 잘 알며, 도에 들어가는 이치[八道諦]를 잘 알고 모든 보살이 차례로 성취하는 지위와 부처님의 지혜를 일으키는 이치를 잘 안다.⁶⁰⁾

이 경문의 내용은 10諦⁶¹⁾로 중생을 교화하는 차별을 밝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열 가지가 있으니 곧 앞의 4제에 대하여 열 가지[十門]로 지어서 관찰하는 것이다.⁶²⁾ 그런 까닭에 『유가사지론』 제48권의 「주품」에서 이 地를 설하는 중 “4성제에 대하여는 열 가지 行相으로 말미암아서 여실히 了知하기 때문이다”⁶³⁾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난승지에서 삼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하나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부지런히 행할 때에 보시함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좋은 말과 이익한 행과 일을 함께 함으로써 중생을 교화하며, 색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법을 연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보살의 행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하며, 여래의 큰 위엄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나고 죽는 허물을 보여서 중생

58)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5卷(T9, 555c), “菩薩住難勝地 善修菩提法故 深心清淨故 求轉勝道故 則能得佛 是菩薩得大願力故 慈悲心不捨一切故 得念慧道力故 修習福慧不捨故 出生方便故 欲得轉勝道上地明觀法故 受諸佛神力所護故 生定不退心故 如實知是苦聖諦 是苦集諦 是苦滅諦 是苦滅道諦.”

59)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2卷(T35, 338c), “明四諦實法分別”

60)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5卷(T9, 555c), “是菩薩善知世諦 善知第一義諦 善知相諦 善知差別諦 善知說諦 善知事諦 善知生起諦 善知盡無生諦 善知入道諦 善知一切菩薩次第成就諸地起如來智諦.”

61) 10가지 聖諦란, 世諦・第一義諦・相諦・差別諦・說諦・事諦・生起諦・盡無生諦・入道諦・一切菩薩次第成就諸地起如來智諦를 말한다.

62)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2卷(T35, 338c), “明十諦化眾生差別 有此十種即是於前四諦作十門觀察”

63) 彌勒菩薩說, 玄奘譯, 『瑜伽師地論』(T30, 558b), “於四聖諦由十行相 如實了知一切文詞.”

을 교화하며, 여래의 지혜와 이익을 칭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며, 여러 가지 방편의 행으로 중생을 교화한다.⁶⁴⁾

앞의 제3지 발광지에서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행섭이었다면, 이 난승지의 경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섭법 중의 첫 번째 항목인 보시섭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섭법의 종류로는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이 있다. 보시는 인색함의 오염(汚染)을 다스릴 수 있는 특효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시섭을 이용하여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보시에서 중요한 것은 무주상보시이다.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 무주상 보시이다. 보시는 3가지가 깨끗해야 한다. 그것은 주는 사람, 주는 물건,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만 그 보시가 진정으로 무주상보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고 하고 있다.

5) 現前地와 遠行地の 처방전

여기서는 제6地和 제7地에서 언급된 처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6地에서 삼독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된 것은 일체는 오직 마음의 조작(一切唯心造)과 12연기, 지혜바라밀 등의 교설이 있다. 둘째, 제7遠行地에서는 십바라밀 중의 방편바라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경문을 중심으로 여기 대해 살펴본다.

삼계에 있는 것이 오직 한 마음뿐인데, 여래가 이것을 분별하여 십이유지(十二緣起)라 말하였으니,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일을 따라서 생기는 탐욕이 마음과 함께 나나니, 마음은 識이요, 일은 行이라.⁶⁵⁾

이 경문은 바로 석존(釋尊)이 올바른 깨달음(正覺)의 내용으로서 중생이 윤회하는 과정을 규명한 것이 십이연기설이다. 여기서의 내용은 삼계의 있는 바가 오로지 한마음[一心]일 뿐임을 밝힌 것이다. 일(事)에 따른 탐욕이 眞心을 미혹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는 것⁶⁶⁾이라 하고 있다. 경전에 따르면 보살은 삼독심을 여원 大悲心에 근거해서

64)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6卷(T10, 192a), “佛子 菩薩摩訶薩如是勤修行時, 以布施教化眾生 以愛語 利行 同事教化眾生 示現色身教化眾生 演說諸法教化眾生 開示菩薩行教化眾生 顯示如來大威力教化眾生 示生死過患教化眾生 稱讚如來智慧利益教化眾生 現大神通力教化眾生 以種種方便行教化眾生。”

65)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7卷(T10, 194a), “三界所有, 唯是一心 如來於此分別演說十二有支 皆依一心 如是而立 何以故 隨事貪欲與心共生 心是識, 事是行”

세간의 실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과 세간의 모든 존재가 아집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다고 한다.⁶⁷⁾ 따라서 십이연기는 삼독의 근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이 6地에서 三毒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열 가지 원만한 마음이다.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면, 깊은 마음·결정한 마음·진실한 참 마음·매우 깊은 마음·변하지 않는 마음[不轉心]·버리지 않는 마음·넓은 마음·끝없는 마음[無邊心]·지혜를 즐기는 마음·지혜의 방편과 어울리는 마음 등 이런 마음이 더욱 늘어난다.⁶⁸⁾

여기서 제시된 것은 10가지 무한한 마음(증장한)을 닦음을 밝힌 것이다.⁶⁹⁾ 다음 제7地에서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청정한 三業의 수행이다. 이것은 곧 3가지 업의 종류로써 몸으로 짓는 3가지와 입[말]으로 짓는 4가지, 뜻[생각, 마음]으로 짓는 3가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 금강장보살은 “보살은 이 칠지에 머물면서 한량없는 몸의 업의 모양 없는 행과 한량없는 입과 뜻의 모양 없는 행이 바로 보살의 깨끗한 행이기 때문에 생멸 없는 법인[無生法忍]을 얻어 모든 법을 밝게 비춘다.”⁷⁰⁾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제칠지에 들어가려면 방편의 지혜를 따라 열 가지 묘한 행을 일으켜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 열 가지란, 공하고 모양 없고 원이 없음을 잘 닦으면서도 자비심으로 중생들 속에 있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따르면서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버리지 않으며, 항상 공에 대한 지혜의 문을 즐겨 생각하면서도 복덕의 양식을 널리 닦아 모으고, 삼계를 멀리 떠났으면서 삼계를 장엄하며, 끝까지 모든 번뇌의 불꽃을 멸했으면서도 중생들을 위해 탐욕과 분노와 수치의 불꽃을 멸하는 법을 일으키고, 모든 법이 꼭두각시와 같고 꿈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아서, 두 모양이 아님에 순

66)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6卷(T36, 897b), “明三界所有唯是一心 明十二有支從一心起 以隨事貪欲迷真心故.”

67) 기무라 키요타카 지음, 김천학·김경남 옮김, 『화엄경을 읽는다』, (서울: 불교시대사, 2002), 155쪽.

68) 佛駄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5卷(T9, 559b), “是菩薩住現前地 深心 決定心 真心 甚深心 不轉心 不捨心 廣心 無邊心 樂智心 慧方便和合心 如是等心轉勝增長.”

69)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6卷(T36, 899a), “明修十種無限心分.”

70) 佛駄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5卷(T9, 562), “是菩薩住是地 無量身業無相行 無量口 意業無相行 是菩薩清淨行故 得無生法忍 照明諸法.”

응하면서도 갖가지 번뇌를 분별하여 업의 과보를 잊지 않는다.⁷¹⁾

항상 자비심으로 중생들과 소통하면서 삼독의 불꽃을 소멸하는 생활은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문에서 언급된 삼독의 2번째 항목인 어리석음에는 2가지 작용이 있는데, 첫째는 환멸(還滅)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고, 둘째는 순수한 작의로써 無相을 구하는 것이다. 모습[相]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有이고, 또 하나는 無이다. 無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을 ‘세상’이라 한다. 따라서 無의 모습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⁷²⁾

비록 일체국토가 허공과 같은 줄 알지마는 청정하고 묘한 행으로 佛(Buddha) 국토를 장엄하며, 붓다(Buddha)의 법신은 본 성품이 몸이 없는 줄 알지마는 相과 好로 몸을 장엄하며, 붓다(Buddha)의 음성은 성품이 적멸하여 말 할 수 없는 줄을 알지마는 일체중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한 맑은 음성을 내며, 붓다(Buddha)를 따라서 삼세가 오직 한 생각인 줄을 알지마는 중생들의 뜻으로 이해하는 분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시기, 여러 가지 겹으로써 모든 행을 닦는 것이다.⁷³⁾

경문에서 “비록 일체 국토가 비록 허공과 같음을 알지라도 능히 청정묘행으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업이空空하고 경계가 적멸하여 자비의 지혜(悲智)의 과보로 장엄하는데 그 자비의 지혜(悲智)가 의지함이 없어서 과보의 相이 그림자 같음을 밝힌 것이며, “비록 모든 붓다(Buddha)의 법신이 본래 성품에서는 몸이 없음을 알더라도 상호로써 그 몸을 장엄한다.”는 것은 법신의 無相으로 망령된 업을 청정케 해서 망령됨이 없어지고 업이 끊어지매 佛智의 경계(智境)과 의정(依正)과 복상(福相)이 청정한 광명의 그림자 같아서 유무의 집착에 속하지 않는 것이 화장세계와 같음을 밝힌 것이다. “비록 모든 붓다(Buddha)를 따라 3세가 일념뿐임을 요달해 알더라도 중생의 뜻과 이해와 분별에 따라 갖가지 相과 갖가지[時]와 갖가지 劫數로써 모든 행을 닦는다는 것

71)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5卷(T9, 561a), “何等爲十 善修空無相 無願 而以慈悲心處在眾生 隨諸佛平等法 而不捨供養諸佛 常樂思惟空智門 而廣修集福德資糧 遠離三界 而莊嚴三界 畢竟寂滅諸煩惱焰 而爲眾生起滅貪癡煩惱焰法 隨順諸法如幻 如夢 如水中月不二相 而起分別種種煩惱及不失業果報。”

72) 法藏述, 『華嚴經探玄記』第13卷(T35, 354b), “答此愚有二用 一執還滅相 二純作意求無相 且依後義立名。”

73)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7卷(T10, 196a-b), “雖知一切國土猶如虛空 而能以清淨妙行莊嚴佛土 雖知諸佛法身本性無身 而以相好莊嚴其身 雖知諸佛音聲性空寂滅不可言說 而能隨一切眾生出種種差別清淨音聲 雖隨諸佛了知三世唯是一念 而隨眾生意解分別 以種種相 種種時 種種劫數而修諸行 菩薩以如是十種方便慧起殊勝行 從第六地入第七地 入已 此行常現在前 名爲 住第七遠行地。”

은 법신의 智體가 때도 없고 겹도 없고 3세의 體도 없으면서도 일체 중생의 업의 차별에 따라 일체의 때와 겹의 차별이 있으므로 중생을 위해 때와 겹의 차별을 분별해서 모든 행을 수행함을 밝히는 것이다. 가령 3기겹과 3생과 1생과 일념과 60겹 등을 설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보살이 이 같은 열 가지 방편 슬기로써 뛰어난 행을 일으켜 제6지로부터 제7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의 열 가지 법은 제7지를 향해 들어가는 것을 밝힌 것이다.⁷⁴⁾

6) 제8地, 9地, 10地の 보살행

제8부동지에서는 無生法忍을 성취하여 동요되지 않는 지위이다. 마음에 분별하는 생각을 떠나 일체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아 삼독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地라고 한다면, 제9선혜지는 사무애지를 얻어 대법사가 되어 설법하는 地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10법운지는 대법우를 비 내리는 地이다.⁷⁵⁾ 여기서의 지면상 나머지 제 8地, 9地, 10地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왜냐하면, 제8지부터 제9지와 10지까지는 사실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간 경지이기 때문에 삼독에 대한 처방 전보다는 깨달음의 단계에서 십지보살의 실천행이 주로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제8부동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제8지 부동지는 수행이 완성되어 흔들림 없이 자연히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 지위에 들어간 보살을 深行보살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세간적인 상이나 삼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성문이나 연각의 무리들로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부동의 경지에 住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지부터 제7지까지 수행을 철저하게 하면 제8부동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 8지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무공용 자체인 본성(本性)에 눈뜸으로써 온갖 작용이 없어지고, 탐·진·치를 떠나 버리는 지위이다. 이 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공용지(無功用地)인 것이다. 이 무공용지(無功用地)의 뜻은 어떤 의도나 목적이 없이 단지 ‘자연의 흐름대로, 순리대로’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지 즉 무공용

74)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6卷(T36, 900c-901a), “經云雖知諸法如幻如夢如文自具而隨心作業無量差別者 明以無體之智幻作諸行應眾生心無量差別 雖知一切國土猶如虛空而能以清淨妙行莊嚴佛土者 明業空境寂悲智報嚴悲智無依報相如影 雖知諸佛法身本性無身而以相好莊嚴其身者 明法身無相以淨妄業 妄亡業謝智境依正福相如淨光影 不屬有無之執 如華藏世界也 雖隨諸佛了知三世唯是一念而隨眾生意解分別以種種相種種時種種劫數而修諸行者 明法身智體無時無劫無三世體 為隨一切眾生業差別 有一切時劫差別 而為眾生分別時劫差別而修行諸行 即如說三祇劫及三生一生一念及六十劫等是 菩薩如是十種方便慧起殊勝行從第六地入第七地 明已前十法是入第七地向。”

75) 해주, 『화엄의 세계』(서울: 민족사, 2001), 106쪽.

지에 들어간 제8지 보살은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대로, 자연의 섭리와 순리대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⁷⁶⁾하면서도 그것에 삼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8부동지에 들어가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재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몸과 지혜를 성취하고는, 목숨에 자유롭고, 마음에 자유롭고, 재물에 자유롭고, 업에 자유롭고, 나는 데 자유롭고, 서원에 자유롭고, 아는 데 자유롭고, 뜻대로 하는 데 자유롭고, 지혜에 자유롭고, 법에 자유로움을 얻느니라.⁷⁷⁾

이 경문은 부동지 보살은 身智를 성취하여 이미 10가지 自在를 얻음을 밝힌 내용이다.⁷⁸⁾ 만약 보살이 이 地에 머물면 깊은 마음의 힘을 얻으며, 모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하고 있다.⁷⁹⁾ 이 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경십불’이 설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해경십불’은 삼독 심을 떠난 뒤에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해경’이란 부처의 마음에 의해 이해된 세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해경십불(十佛)이란 우주만법의 이치를 여실히 깨달아 얻은 지혜로써 나타나는 붓다(Buddha)라는 뜻이다.⁸⁰⁾ 이것을 경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불자여, 이 보살은 모든 몸의 분별을 아주 떠나 평등한 데 머물며, 이 보살은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독각신, 보살신, 여래신, 지신, 법신, 허공신을 안다. 이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알아 능히 중생신으로 자기의 몸을 나타내고[作], 또한 국토신, 업보신 내지 허공신으로 나타낸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능히 알아 국토신으로서 자기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중생신, 업보신 내지 허공신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모든 중생이 좋아하는 바가 같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형상으로 그 몸을 나타낸다.⁸¹⁾

76) 이도업, 『화엄경사상연구』(서울: 민족사, 1998), 570쪽.

77)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8卷(T10, 200b), “佛子 菩薩成就如是身智已 得命自在 心自在 財自在 業自在 生自在 願自在 解自在 如意自在 智自在 法自在 得此十自在故.”

78)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7卷(T36, 907c), “明此位已成就如上身智已得十自在分.”

79)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8卷(T10, 200b), “得善住深心力 一切煩惱不行.”

80) 권단준, 『화엄경의 세계』(서울: 씨아이알, 2013), 80쪽.

81)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8卷(T10, 200a), “佛子 此菩薩遠離一切身想分別 住於平等 此菩薩知眾生身 國土身 業報身 聲聞身 獨覺身 菩薩身 如來身 智身 法身 虛空身 此菩薩知諸眾生心之所樂 能以

이 경문은 내용은 삼독에서 벗어난 제8부동지의 보살이 세간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佛身의 모습이 10가지로 그 몸을 나타내고 있다⁸²⁾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지에서 붓다(Buddha)와 동화된 보살은 무량한 신체·무량한 음성·무량한 지혜에 의해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8지의 부동지 보살은 모든 고통을 궁극적인 깨달음에 회향하며, 여래의 세계를 더 한층 깊이 관찰·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제9선혜지에서는 삼독에서 벗어난 후 보살행에 대해 살펴보면, 이름에서부터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어떤 곳에 처하더라도 佛法을 설할 수 있는 단계를 선혜지라고 한다. 이 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저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근기와 욕망이 가지가지로 다른 뜻을 잘 살펴서 그에 맞게 법을 설한다.⁸³⁾

이 경문에서도 말해주고 있듯이, 선혜지에 머물게 되면 이미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근기와 욕망이 다르게 때문에 근기를 잘 살펴서 그에 맞게 법을 설해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제9지선혜지 보살이 중생들의 실상을 여실하게 아는 11가지 행이다.

이 보살이 이러한 지혜로써 중생들의 마음의 뻑뻑한 숲[稠林]과 번뇌의 뻑뻑한 숲과, 업의 뻑뻑한 숲[稠林]과, 근기의 뻑뻑한 숲[稠林]과, 지혜의 뻑뻑한 숲[稠林]과, 근성의 뻑뻑한 숲[稠林]과, 욕망의 뻑뻑한 숲[稠林]과, 隨眼의 뻑뻑한 숲[稠林]과, 태어나는 뻑뻑한 숲[稠林]과, 버릇[習氣]이 계속하는 뻑뻑한 숲[稠林]과 세 종류 차별의 뻑뻑한 숲[稠林]을 사실대로 안다.⁸⁴⁾

이것은 곧 중생들의 마음과 번뇌, 업, 근기, 지혜, 근성, 욕망, 수안(隨眼), 태어나는 것, 습관[習氣]이 계속하는 것[윤회]과 세 종류 차별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이다. 이

眾生身作自身 亦作國土身 業報身 乃至虛空身 又知眾生心之所樂 能以國土身作自身 亦作眾生身 業報身 乃至虛空身 隨諸眾生所樂不同 則於此身現如是形.”

82) 권단준, 『화엄경의 세계』(서울: 씨아이알, 2013), 80쪽.

83) 佛駄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6卷(T9, 570b), “菩薩住是地 悉知眾生心 諸根及欲樂 種種差別義 深心善思惟 隨宜而說法.”

84)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第38卷(T10, 202a), “此菩薩以如是智慧 如實知眾生心稠林 煩惱稠林 業稠林 根稠林 解稠林 性稠林 樂欲稠林 隨眠稠林 受生稠林 習氣相續稠林 三聚差別稠林.”

경문에서 “이 보살이 이러한 지혜로 여실하게 중생심의 조림을 안다.”고 한 것은 번뇌의 넓고 많음이 조림과 같아서 모두가 마음을 말미암아 일어남을 총체적으로 든 것이다. 무심하면 곧 모든 행의 조림이 멸진해서 대 지혜가 숲과 같아 능히 일체 중생을 덮어 보호하기 때문에⁸⁵⁾ 이렇게 말한 것이다. 반대로 이 내용은 여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번뇌의 조림과 수면조림[삼독조림]인 중생의 실상이다. 여기서 수면조림이란 것은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며[욕수], 둘째는 ‘성냄[瞋]’이며, 셋째는 ‘유에’이며, 넷째는 ‘애’이며, 다섯째는 ‘게으름[慢]’이며, 여섯째는 ‘무명’이고, 일곱째는 ‘견의’이다.⁸⁶⁾ 따라서 이 선혜지에서는 이러한 삼독의 실상을 알아 4가지 결립없는 지혜[사무애지]로서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온갖 지혜를 실천·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중생마음의 다양성, 찰나 찰나에 변해가는 수많은 마음의 성질과 마음의 속박 등의 진상을 그대로 인식할 때 삼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10법운지에서는 삼독에서 벗어난 보살이 얻게 되는 功果에 대하여 주로 강조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이 법운지는 삼독에서 벗어난 大法身の 자유자재한 경지이다.

불자야, 이 법운지에 머무는 보살마하살은 원력으로부터 큰 자비심을 내어 복덕과 지혜로 뻑뻑한 구름을 삼고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잡색 구름을 삼으며, 신통과 광명과 두려움 없음으로 번갯불을 삼고 큰 천둥소리를 떨쳐 법을 연설해 악마를 항복 받으며, 한 생각 한 찰나 위에서 말한 티끌 수 같은 세계의 두루 다니고 좋은 감로의 법 비를 내려 중생들의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과 무명이 일으키는 번뇌의 불꽃을 소멸하기 때문에 이 지를 법운지라 한다.⁸⁷⁾

이 경문은 능히 法雨를 주입해서 모든 중생의 번뇌와 번뇌의 불꽃(塵焰)을 소멸하는 것을 법운지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 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금강장보살이 가진 넓고 깊은 바다의 10가지 큰 덕이다. 법운지에 오르면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열 가지 덕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저 유명한 바다의 10덕에 대한 비유이다.

85)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7卷(T36, 910a), “三此菩薩知一切眾生十種稠林分中 經云此菩薩以如是智慧如實知眾生心稠林者 總舉煩惱廣多如稠林 皆由心起 無心即諸行稠林滅 大智如林 能普覆護一切眾生故.”

86) 李通玄撰, 『新華嚴經論』第27卷(T36, 910a), “隨眠稠林者 有七 一欲受二瞋三有恚四愛五慢六無明七見疑.”

87) 佛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第27卷(T9, 573b), “佛子 菩薩摩訶薩住法雲地 自從願力生大慈悲福德智慧 以為密雲 現種種身 以為雜色雲 通明無畏 以為電光 震大雷音 說法降魔 一念一時 能於上所說微塵世界 皆悉周普 以雨善法甘露法雨 滅諸眾生隨心所樂無明所起煩惱焰故 是故名為法雲地.”

지금까지 각 지에서 삼독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初地에서 넓고 큰 서원을 발하고, 제2地에서 계율을 지키며, 제3地에서 禪을 닦고, 제4地에서 오로지 道行을 청정하게 닦고, 제5地에서 지혜의 방편을 연마하고, 제6地에서 깊고 깊은 12인연을 잘 알며, 제7地에서 광대한 마음을 닦고, 제8地에서 세간을 장엄하는 신통력을 발하며, 제9地에서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고, 제10地에서 모든 붓다(Buddha)의 진리의 단비[큰 법의 비를 받는다]내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해법은 쉬운 듯하나, 결코 쉽지 않은 실천행이지만, 할 수 있는 작은 선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십지에 담긴 종교 교육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십지에 담긴 종교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을 때, 교육적 함의는 보살의 기본적 종교체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술한 초지에서 제10地에 이르는 단계는 결국 인격세계[인성함양]의 발전과정을 10단계로 나눈 것이기 때문이다. 이 10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시발점] 되는 것이 환희지이다. 환희지의 교육적 함의는 보살이 진리를 체득한 즐거움으로 넘쳐있는 경지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있다. 환희하는 즐거움은 중생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가장 기본적인 本性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初地에서 보살은 그 종교적 서원에 입각해서 10가지 원을 세우고 그 실현에 착수한 것이다. 여기서의 전언은 우리에게 환희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그 계획의 실현에 착수해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2 이구지에 담긴 교육적 특색은 현실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을 지켜서 삼독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된 것이 십악업(十惡業)을 버리고, 십선업(十善業)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 열 가지 선업[十善業]이 불교의 핵심인 칠불통계계(七佛通戒偈)의 가르침이다. 제3발광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교 교육은 스스로 궁극적인 깨달음인 선함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깨닫도록 노력하는 利他的 실천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타행의 실천행은 자기 속으로부터 지혜의 광명이 생겨나게 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염혜지에서 강조한 종교교육은 제3지에 이어서 지혜의 광명은 결국 자기 안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제5난승지에서는 10가지 평등심을 종교교육으

로 강조하고 있다. 즉 청정한 마음으로 평등하게 실행해 나가야 자신의 인성연마와 중생에 대한 평등심을 함양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난관에 부딪힌다고 좌절하거 물러나지 않고,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수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제6현전지에서의 교육적 함의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自覺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설한다. 행·불행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신의 마음의 조작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가르침이다. 제7원행지에서의 종교교육은 보살행의 완성을 향하는 일에서 잠시라고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교설이다. 그리고 제8부동지의 교육은 正法을 향해서는 한 치도 동요하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9선혜지에서는 광명의 지혜로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씨·미혹의 상황·능력의 우열·사람들의 이해력정도·활동 범위의 구별 등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그들을 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10법운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선한 활동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무수한 사람들을 예배 공양하는 등의 이타행을 실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 교육적 함의들이 이품에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상,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三毒에 대한 불교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화엄경』 「십지품」에 나타난 敎說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의 논지전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먼저 제2장에서는 초기 경전에 설해진 三毒교육에서 삼독의 일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삼독이란 貪慾, 瞋恚, 愚癡의 3가지의 번뇌를 말하며, 이 삼독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마치 3마리의 독사와 같다고 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경전에 의하면, 三毒의 원인은 6가지 감각기관[六根]과 6가지 경계대상[六境], 6가지 인식기관[六識]의 三事가 화합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삼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례로, 눈으로[육근: 안근] 색깔을 보고[육경: 색경] 그 색깔을 인식하여 판단하는 것[육식: 안식]이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삼독이 무엇에 의해 生起하

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까지 설해져 있는데, 삼독은 탐욕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고, 성냄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으며,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고, 태어남·늡음·병듦·죽음·근심·슬픔·번민·괴로움의 불에 의해 生起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각은 일차적으로 외부대상에 의해 야기되므로, 대상에 의해 촉발된 만큼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아 촉감하고, 생각하고 판단·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삼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삼독의 불꽃인 탐욕·분노·어리석음의 소멸하여, 본래 청정한 광명의 빛인 佛性を 깨달아서, 究竟에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佛國土를 건설하는데 있는 것이다.

제3장은 『화엄경』 「십지품」에 제시된 脫三毒의 종교교육을 十地를 설한 이유와 십지 이름에 담긴 함의와 十地에 나타난 三毒의 폐해 그리고 「십지품」에서 제시한 三毒에 대한 처방전[해결방안], 십지에 담긴 종교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십지품」의 제1 환희지에서 제5 난승지까지는 보살의 수행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생략한다. 제6현전지는 유심계가 교설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세계는 망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12인연도 마음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유심계의 문장이 교설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7 원행지는 10가지 묘한 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삼독과 오욕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서원, 즉 願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거내[行] 오거내[주] 앓거내[죄] 눅거내[와] 항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심을 일으키는 보살은 10바라밀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제8부동지는 일체세간의 모습이나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야만 이 지에 머물 수 있다고 교설한다. 사실, 무너지지 않는 부동의 경지, 퇴보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뇌는 무엇을 배우다가 그만두면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보살이 이 부동지에 들어가면, 세간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심원한 경지에 머물러, 상념·망념·탐착·집착·성냄·어리석음 등 일체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경지이기 때문에 결코 타인이 파괴할 수 없다고 한다. 희로애락을 나타내지 않고, 지혜가 확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경지가 이 부동의 경지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견고한 禪定の 힘이다. 제9선혜지에 머무르면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모든 근기와 모든 욕

망과 갖가지 다른 이치를 모두 잘 안다”고 이 품에서 설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중생의 마음과 능력과 욕망, 각각 다른 이치를 다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 제10 법운지에서는 지혜로써 자재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물론 이 십지에 머무르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선근수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평범한 일반사람들이 이 초지인 환희지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십지수행을 자신의 생활 속에 가져와서 적용시켜보는 것도 삶에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삼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십지의 각 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르침의 결론은 “모든 惡을 짓지 말고, 온갖 善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붓다(Buddha)의 가르침이다.”라는 七佛通戒偈로 집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화엄경』 「십지품」에는 무궁무진한 방편들이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개의 각 地마다 설해져 있는 다양한 처방전[해결방안]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는 내용들로써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원전

◎ 약어

『大正新脩大藏經』 ‘T’로 약칭.

『漢譯南傳大藏經』 ‘N’로 약칭.

『卍新纂大日本續藏經』 ‘X’로 약칭.

求那跋陀羅譯, 『雜阿含經』(T2)

瞿曇僧伽提婆譯, 『增壹阿含經』(T2)

闍那崛多譯, 『佛本行集經』(T3)

尊者法救撰, 維祇難等譯, 『法句經』卷下 (T4)

竺佛念, 『出曜經』 권제25, (T4)

佛馱跋陀羅譯, 『大方廣佛華嚴經』(T9)

實叉難陀譯, 『大方廣佛華嚴經』(T10)

金剛智譯,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T18)

義淨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T23)

天親菩薩造, 菩提流支等譯, 『十地經論』(T26)

聖者龍樹造, 鳩摩羅什譯, 『十住毘婆沙論』(T26)

彌勒菩薩說, 玄奘譯, 『瑜伽師地論』(T30)

法藏述, 『華嚴經探玄記』(T35)

智儼述,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T35)

李通玄撰, 『新華嚴經論』(T36)

慧遠, 『大乘義章』(T44)

智者大師撰, 『法界次第初門』(T46)

佛音撰, 悟醒譯, 『清淨道論』(N67)

『毗尼作持續釋』(X41)

2. 단행본 및 논문

전재성, 『(우리말산스크리트대장경)십지경-오리지널 화엄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3.

- 용산장진, 『(梵文和譯)十地經』, 國書刊行會, 1982.
- 권탄준, 『화엄경의 세계』, 씨아이알, 2013
- 기무라 키오타카 지음, 김천학·김경남 옮김, 『화엄경을 읽는다』, 불교시대사, 2002
- 김재성, 『초기불교산책1』, 한연, 2010.
- 李通玄撰, 曉山역해, 『略釋新華嚴經論』, 운주사, 1999.
- 이도업, 『화엄경사상연구』, 민족사, 1998.
- 카마타 시게오 저, 장휘옥 역, 『화엄경이야기』, 도서출판 장승, 1992.
- 平川彰, 『華嚴思想』, 경서원, 1988.
- 해주, 『화엄의 세계』, 민족사, 2001.
- 강기선, 「생명윤리와 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김재성, 「초기불교의 번뇌」, 『印度哲學』제29집, 인도철학회, 2010.
- 박미옥·고진호,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49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이기운, 「탐·진·치 삼독 깨뜨리면 불성 볼 수 있어」, 『선원』통권247호, 선학원, 2016.
- 이자랑, 「계율에 나타난 분노의 정서와 慈愛(mettā)를 통한 치유」, 『韓國禪學』제28호, 한국선학회, 2011.
- 성승연, 「불교와 상담심리학 : 삼독심과 상담 관계의 치료적 특징」, 『불교평론』제12권 제2호 통권 제43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 유지혜, 「탐진치(貪瞋癡) 지멸(止滅)의 도덕교육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10.

원고접수일: 2018년 1월 23일 심사일: 2018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연구자소개: 강기선(도업)

① 전공: 불교 교학(응용불교) / 소속: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불교 교학, 응용불교, 불교문학

③ 주요논저: 「『화엄경』, 『십지품』에 담긴 문학성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불교 효 윤리의 교육적 특성」, 「『화엄경』, 『십지품』의 사상에 담긴 문학적 비유와 철학적 성」

④ E-mail : 11doup@hanmail.net

Abstract

Religious Lessons of Buddhism Regarding the Three Poisons(三毒)
- Based on 「*Sipjipum*(十地品)」 of 『*Avatamsaka-sutra*』

Kang, ki-Seon

Dongguk University

This essay features religious lessons of buddhism regarding the Three Poisons(三毒), referencing 「*Sipjipum*(十地品)」 of 『*Avatamsaka-sutra*』 as the main text.

The essa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description of Three Poisons in early versions of the script is introduced in 2nd chapter of the essay. Three Poisons described in here consists Greed(貪慾), Anger(瞋恚), and Ignorance(愚癡), which are three main factors that disrupts one's state of mind. They are referred as "Poisons" because not only they are the sources of all disruptions, they also harm people's mind akin to three vipers. The Script empathizes that the cause of Three Poisons starts from the stimulation of eyes, the first of six sensory organs, where it progressively stimulates Realm of Vision(色境), the Perception of Vision(眼識), and finally simulates the Five Components of Self(五蘊) so that they are triggered simultaneously to create disturbance. There is also a clear explanation regarding what fuels Three Poisons to thrive. There are spark of greed and spark of anger from sensory stimulation, spark of ignorance from mental aspect, and finally, sparks of birth, aging, illness, death, sorrow, anguish, suffering that empowers the flame of Three Poisons. Our senses are stimulated primarily by outside source, but what truly evokes Three Poisons is that the fact that we see, hear, smell, taste, feel only as much as we are stimulated, so that we discriminate, judge, and eventually cling to it. From this, it is clear that the Three Poisons are evoked by workings of 18 realms(18界)[Six roots + Six factors of consciousness + Six cognitions] The key point is, therefore, that the salvation of all beings is to elimination of greed, anger, and ignorance.

The Third chapter covers Three Poisons described in 「*Sipjipum*(十地品)」, and their solutions according to each section of Ten Grounds(十地). As the result, various methods of teachings described in detail were found in every stages of Ten Grounds. The solutions clearly appears

to be the upmost cure for Three Poisons, the root of all evil.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in 『*Daśabhūmikasūtra-śāstra*(十地經論)』, the commentary book of 『*Avatamsaka-sutra*』, states that the purpose of teaching Ten Stages lies in curing Ten Disabilities - which are, in fact, many forms of mental affliction and idle thoughts. We, who lives modern days, should still be aware of the harmful effect of Three Poisons mentioned in the section of Stage of Joy(歡喜地), and only way to achieve emancipation from it is to practice the teachings of Ten Stages. In short, all methods against Three Poisons listed in teachings of Ten stages are concluded into Seven Buddha's Prohibitions(七佛通戒偈): "Do not commit all evil, and practice all goods. keeping one's mind pure by oneself, that is the teachings of every Buddha."

Key words : Early script, *Avatamsaka-sutra*, *Sipjipum*(十地品), Three Poisons(三毒) Seven Buddha's Prohibitions(七佛通戒偈)